KIEP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6년 11월 3일 Vol. 9 No.70 ISSN 2635-5981

브라질 대선·총선 결과와 룰라 4기 정부의 정책 전망

박미숙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원 (misookp@kiep.go.kr, 044-414-1105)
손은아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euna@kiep.go.kr, 044-414-1323)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브라질 대선 및 의회·주지사 선거 결과
2. 대선 주요 공약 및 법제화된 정책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좌·우 진영 간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치러진 브라질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좌)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의회에서는 자유당(우)이 약진하여, 좌·우 진영이 행정부와 의회를 나누어 갖는 대립 구도가 형성됨.

- [대선] 10월 25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 대통령이 51.79%를 얻어 자유당(PL)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48.21%)를 상대로 재선에 성공함.
- [의회·주지사] 10월 4일 의회·주지사 선거에서 자유당(PL)이 하원 23석과 상원 14석을 늘리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개별 정당 중 가장 많은 수의 주지사를 배출함.

▶ 룰라 4기 정부는 '국가 주도 발전과 다자·균형 외교'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나, 우파의 영향력이 커진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정책은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고, 좌·우가 동의하거나 이미 법제화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조세에서는 지출 축소와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우파와의 절충이 필요하고, 농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 정책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은 우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 핵심광물 고부가가치화, △ 비료 국산화, △ 바이오연료 등 두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한 정책과, 룰라 3기 정부에서 법제화된 △ 핵심광물, △ 그린 전환, △ 첨단산업 지원 정책은 의회 구도와 관계없이 기본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정책 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속에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노력이 이어지고,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분야가 브라질의 초당적 지지 분야와 겹쳐 양국 협력이 심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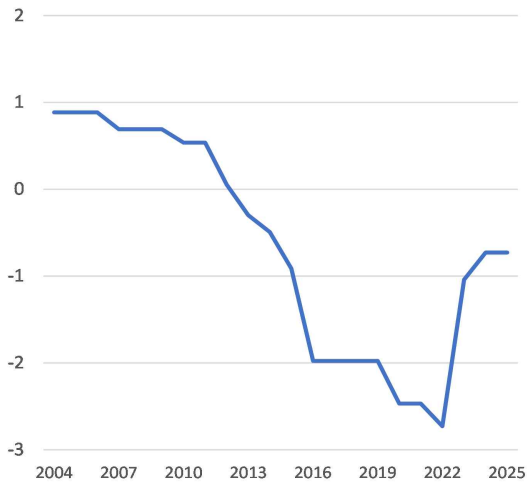
-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관세를 최대 37.5%(25%+12.5%) 부과하는 가운데, 룰라 4기 정부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를 통한 통상 다변화를 지속할 전망이며 한-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재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산업 등의 분야는 브라질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거나 법제화되어 지원받는 분야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의제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1. 브라질 대선 및 의회·주지사 선거 결과

■ 브라질 사회는 2014년을 전후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선거는 좌·우 진영 간 대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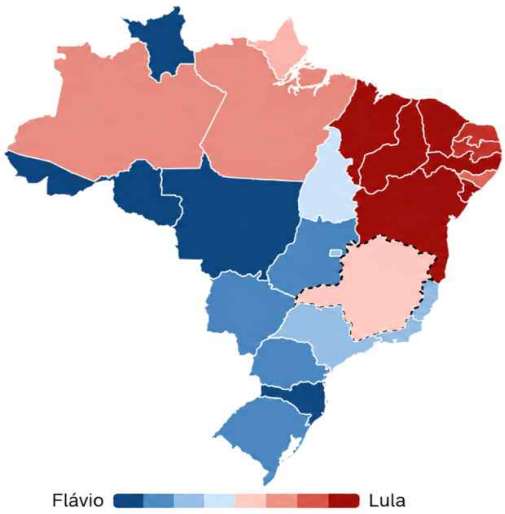
- 대규모 권력형 부패 수사(2014~21년)와 지우마 대통령 탄핵(2016년)을 거치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었고, 2022년 대선에서 정점에 달함.

그림 1. 브라질 사회의 양극화(지수)



주: 수치가 낮을수록 양극화가 심함을 의미함.
자료: V-Dem.

그림 2.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지역별 결과



주: 지도에서 색이 진할수록 각 후보의 득표율이 높다는 의미
자료: Exame(2026. 10. 26.), "Mapa: veja como ficou a votação para presidente em cada estado no 2º turno"(검색일: 2026. 10. 26.).

■ [대선] 10월 25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 대통령이 51.79%를 얻어, 자유당(PL)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를 상대로 재선에 성공함.

- 결선 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이 51.79%, 플라비우 후보가 48.21%를 얻음.[1)]
  - ○ 10월 4일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후보가 47.03%로 룰라 대통령(45.16%)을 앞섰으나[2)] 결선투표에서 결과가 역전되었고, 두 차례의 투표는 좌·우 진영이 대등한 규모로 맞서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별 득표 결과 룰라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부(아마존) 및 북동부를 중심으로 13개 주에서 승리한 반면, 플라비우 후보는 남부·남동부(산업) 및 중서부(농업) 위주의 14개 주·연방구에서 승리함.
  - o 브라질의 경제·산업 중심지인 상파울루주와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플라비우 후보가 모두 승리하였으나, 주도인 상파울루시와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앞서, 주 전체와 상이한 결과를 보임.[3)4)]

1) Tribunal Superior Eleitoral(2026. 10. 26.), "Presidente do TSE anuncia reeleição de Lula e faz balanço do 2º turno das Eleições 2026"(검색일: 2026. 10. 26.).
2) Tribunal Superior Eleitoral(2026. 10. 5.), "Flávio Bolsonaro (PL) e Lula (PT) Vão disputar o 2º turno para a Presidência da República"(검색일: 2026. 10. 26.).

■ [의회·주지사] 10월 4일 의회 선거에서 플라비우 후보의 자유당(PL)이 상·하원 모두에서 의석 수를 다른 정당과 비교해 가장 크게 늘렸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개별 정당 중 가장 많은 주지사를 배출함.

- [하원] PL은 전체 513석 가운데 121석을 확보해 제1당 지위를 유지하고 선거 직전 대비하여 의석을 23석 늘림. 반면, PT의 연합정당(노동자당/PT, 공산당/PCodeB, 녹색당/PV)은 6석 증가에 그침.
- [상원] 전체 81석 중 54석을 새로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PL이 의석을 가장 많이 늘렸으며, 임기가 유지되는 기존 의원 등을 포함하면 2027년 상원에서 29석으로 제1당을 차지할 예정임.
- [주지사] 26개 주·연방구의 선거에서 PL이 6개 지역에서 승리하여 정당 중 가장 많은 주지사를 배출함.

표 1. 하원 의석 수

(단위: 개)

성향[5]	정당	의석 수
좌	**PT 연합**	**88(+6)**
	Psol 외	15(-1)
	소계	103(+5)
중도좌	PSB 외	21(-6))
중도	MDB 외	48(-2)
중도우	PSB 외	81(-13)
우	**PL**	**121(+23)**
	União 외	139(-7)
	소계	260(+16)
합계		513

주: 의석 수 항목에서 ( ) 안은 총선 후 증감임.
자료: Diap(2026. 10. 5.), "Direita e ultra conservadorismo tem maioria no congresso"(검색일: 2026. 10. 26.).

표 2. 상원 의석 수

(단위: 개)

성향	정당	의석 수
좌	**PT**	**10(+1)**
	Rede	1(+1)
	소계	11(+2)
중도좌	PSB, PDT	5(-3)
중도	MDB 외	8(-2)
중도우	PSB 외	8(-13)
우	**PL**	**29(+14)**
	União 외	19(+2)
	소계	48(+16)
무소속		1
합계		81

주: 의석 수 항목에서 ( ) 안은 총선 후 증감임.
자료: Diap(2026. 10. 5.), "Direita e ultra conservadorismo tem maioria no congresso"(검색일: 2026. 10. 26.).

표 3. 주지사 수

(단위: 명)

성향	정당	수
좌	PT	**4**
중도	MDB	1
중도우	PSD	5
	PSDB	2
	Podemos	1
	소계	8
우	**PL**	**6**
	PP	4
	Republicanos	4
	소계	14
합계		27

자료: Exame(2026. 10. 25.), "Eleições 2026: PL lidera número de governadores eleitos; veja a lista por partido"(검색일: 2026. 10. 26.).

■ 룰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대선 1차 투표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주지사 선거에서 우파 PL이 크게 약진하여, 좌·우 진영이 행정부와 의회를 나누어 차지하는 대립 구도가 형성됨.

3) Tribunal Regional Eleitoral-SP(2026. 10. 25.), "Eleições 2026: Lula é reeleito presidente da República; confira resultado do 2º turno em SP"(검색일: 2026. 10. 26.).
4) CNN Brasil(2026. 10. 25.), "Lula vira e fica à frente de Flavio Bolsonaro na ciudade do Rio de Janeiro"(검색일: 2026. 10. 26.).
5) 2026년 브라질 의회에서 좌석을 가진 정당의 수는 22개로, 정당을 성향에 분류하는 기준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표 1]~[표 3]의 분류는 Diap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임.

2. 대선 주요 공약 및 법제화된 정책

가. 룰라 4기 정부의 주요 공약 및 우파 후보와의 비교

■ 4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존의 '국가 주도 발전과 다자·균형 외교'의 정책 기조를 유지함.

- 국가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 신산업정책(NIB), △ 생태전환계획(PTE)[6], △ 대규모 인프라 개발(Novo PAC)을 추진하고, 국책은행(BNDES)의 저금리대출·세제혜택·공공조달 등으로 전략 부문을 지원하며, 4기 정부에서도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7]
- 균형 외교와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여 G20 의장국, BRICS 의장국, COP30 개최국으로서 다자외교에 주력하고, 4기 정부에서도 연속된 외교정책을 공약함.[8]

■ 두 후보 모두 △ 핵심광물·첨단산업, △ 농업·비료, △ 환경, △ 저소득층 지원, △ 보건·의료 부문에서 공통된 정책 목표를 제시했기에, 해당 부문에서 룰라 4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초당적 지지 기반을 가짐.

- [핵심광물·첨단산업] 광물 원석 수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 가공 단계를 추가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핵심 광물 개발을 AI·데이터센터·배터리·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으로 이어가고자 함.[9]
- [농업·비료] 중동 분쟁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이 초래한 식량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설비를 확충하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함.[10]
- [환경] 삼림벌채 근절, 위성·AI 기술을 활용한 환경 범죄 단속, 탄소시장 활성화, 환경 보존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공 등을 공통으로 제시함.[11]
- [저소득층]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서민 주택 보급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함.[12]
- [보건·의료] 현재의 공공의료(SUS)를 유지하되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 백신 생산 및 원격의료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의약품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함.[13]

■ 반면 플라비우 후보는 시장 주도의 발전을 지향해 룰라 대통령의 공약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 공약은 향후 우파 우위 의회의 정책 요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룰라 대통령의 부분별 공약을 살펴볼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생태전환계획(PTE: Plano de Transformação Ecológica)은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룰라 정부의 계획으로, 그린 채권, 민간 투자 유치, 탄소시장 등을 수단으로 활용함.
7) 룰라 공약(2026), pp. 50-53.
8) 위의 자료, pp. 77-83.
9) Gazeta do Povo(2026. 8. 17.), "Plano economico de Lula repete promessas de 2022 e nao menciona reducao de gastos"(검색일: 2026. 10. 26.); 룰라 공약(2026), "Lula, Presidente," pp. 51-52; 플라비우 공약(2026), "Para o Brasil, vencer o atraso," p. 55.
10) 룰라 공약(2026), pp. 60-62; 플라비우 공약(2026), p. 54.
11) 룰라 공약(2026), p. 51, pp. 70-72; 플라비우 공약(2026), pp. 57-59.
12) 룰라 공약(2026), p. 12, p. 45; 플라비우 공약(2026), pp. 42-43, p. 47.
13) 룰라 공약(2026), pp. 34-39; 플라비우 공약(2026), p. 37.

- 부친인 보우소나루 전 정부(2019~22년)와 같이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감세·규제완화·민영화 등 시장 중심의 발전을 제시하여, 의회 의결이 필요한 예산·조세·노동법 개정 등에서 우파 의회가 룰라 4기 정부와 이견을 보일 수 있음.

표 4. 룰라 4기 정부의 공약과 의회 동의 필요 여부

분야	룰라 정부의 현재 정책 및 공약	의회 동의 사항	플라비우 공약
재정	·기존 준칙 유지 ·재정수지 개선	·예산 배정	·부채 축소를 위한 신규 준칙 ·지출 대폭 삭감
조세	·조세개혁(5종 소비세→2종 부가가치세) 완료 ·조세 정의 기조 유지 (고소득층 과세, 저소득층 면세·감면)	·세율 확정 ·기금 운용	·부가가치세율 인하 ·에너지·연료 감세 ·금융거래세(IOF) 폐지
산업	·국가 주도 육성(NIB, PTE, Novo PAC) ·국영기업의 역할 강화	·예산 배정	·시장 주도의 발전 ·민영화 재개
환경	·2030년까지 순 벌채 제로(zero) ·탄소배출권거래제(SBCE) 정착	·예산 배정	·2029년까지 삼림벌채 근절 ·탄소시장 운영 ·환경인허가 기준 완화
노동	·주 6일 근무제 폐지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도입 ·최저임금 인상 기조 유지	·노동조건 변경 ·노동자 보호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노동법의 조건보다 우선시 ·기업의 고용 부담 경감(청년 및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 시)
복지	·저소득층 지원 확대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연금 지급 ·서민주택 공급,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 ·공공의료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디지털화	·예산 확대	·저소득층 지원 유지 ·최저임금에 연동한 연금 유지 ·서민주택 공급 ·공공의료 효율화, 디지털화
외교 통상	·균형·다자외교(BRICS, G20, Mercosur 등) ·통상대상 다변화	·통상협정 비준	·미국·이스라엘·아르헨티나 우선 ·실용외교
치안	·치안부를 신설하여 연방정부의 역할 강화 ·범죄 조직 자금 차단, 경찰 신뢰성 제고	·치안부 신설	·처벌 강화와 수용시설 확대 ·범죄 조직 강경 대응

자료: 룰라 대통령과 플라비우 후보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재정] 현재의 재정 준칙을 유지하되, 재정 개선을 위해 지출 삭감을 추진하는 대신 △ 성장에 의한 세수 증대, △ 지출 증가 억제, △ 조세 정의 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기에, 지출 축소를 중시하는 우파와 입장이 엇갈림.**[14]

- 룰라 3기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정부 부채는 룰라 3기 시작 시점인 2023년 1월에 GDP의 71.5%였으나 2026년 8월에 82.9%까지 늘어남.[15]
- 룰라 3기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면제·감면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시행하였고, 선거 기간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함.[16]
- 반면, 플라비우 후보는 정부 부채 축소를 중시하여, 신규 재정 준칙을 마련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 세금 인상 없이 재정 부족을 보전할 것이라고 공약했기 때문에, 룰라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함.

14) 룰라 공약(2026), p. 49.
15) 브라질 중앙은행(검색일: 2026. 10. 26.).
16) Examen(2026. 10. 24.), "Lula x Flávio Bolsonaro: o que cada um propõe para Imposto de renda e IVA?"; Poder360(2026. 9. 28.), "Lula diz que pode tirar "um pouquinho" dos ricos para os pobres"(검색일: 2026. 10. 26.).

■ [조세] 5종의 소비세를 2종의 부가가치세로 간소화하는 조세개혁을 룰라 3기 정부에서 시작했고, 4기 정부에서 세부 지침을 완성할 계획이나, 세율 확정과 업종별 세제 혜택 등에서 우파와 견해 차이가 존재함.

- 현재 소비세는 연방정부·주·시가 부과하는 5개 종류(PIS·Cofins·ICMS·ISS·IPI)가 중첩 부과되는데, 이를 CBS(연방정부 세)와 IBS(주·시 세) 2개로 단순화하도록 헌법을 2023년 개정함..[17]
  - ○ 개정된 법은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2033년에는 5개 종류의 세금이 전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CBS와 IBS로 전환됨.
- 룰라 4기 정부는 소비세 통합과정에서 신설된 지역개발기금이 지역 불평등 완화에 사용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CBS의 세율을 확정할 계획임.[18]
- 조세개혁 후 추정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약 28%인데, 플라비우 후보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업종별 혜택을 재검토해 세율을 낮추자는 입장이어서, 세부 지침 확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19]

■ [산업]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인 △ 신산업정책(NIB), △ 생태전환계획(PTE), △ 대규모 인프라 개발(Novo PAC)을 유지 및 확대하고, 국영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신산업정책(NIB)을 개선 및 강화하여 혁신·AI·핵심광물·바이오경제·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국산화율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금융·공공조달·국산화 요건 등을 산업발전의 수단으로 유지할 계획임.[20]
- 생태전환계획(PTE): 탄소배출권 거래제, 지속가능성 분류 체계를 구체화하여 녹색 채권을 발행함.[21]
- 인프라 투자(Novo PAC): 도로, 철도,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가스 및 전력망을 확충함.[22]
- 페트로브라스가 연료 유통 사업에 재진출하도록 하고 정유·비료 투자를 확대해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23]
- 산업 정책은 행정부가 주도하여 의회가 직접 견제하기 어렵고, 우파 진영도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정부 지출에서 의견을 달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소 견제할 가능성이 있음.

■ [환경] 2030년까지 삼림벌채를 근절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정착시킬 계획으로, 농업 생산에 부담을 주는 환경 정책에서는 우파와 견해를 달리함.

- 룰라와 플라비우 후보 모두 삼림벌채 근절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약하였기에 방향성은 동일함.
- 그러나 농업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우파 의원이 산림 보호구역 축소나 환경 단속 완화 등을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농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책에서는 의견을 달리함.[24]

---

17) Invest News(2026. 8. 17.), "IBS e CBS: entenda os novos tributos da reforma tributária"(검색일: 2026. 10. 26.).
18) 룰라 공약(2026), pp. 56-59.
19) Dinheiro(2016. 10. 20.), "Reforma tributária: Lula defende implementação e Flávio propõe revisão"(검색일: 2026. 10. 26.).
20) 룰라 공약(2026), pp. 50-51.
21) 위의 자료, pp. 51-52.
22) 위의 자료, pp. 52-53.
23) 위의 자료, pp. 63-67.
24) Reporter Rrasil(2026. 5. 22.), "Câmara agiliza projetos que enfraquecem regras ambientais; entenda os impactos"(검색일: 2026. 10. 26.).

■ [노동] △ 주 6일 근무 폐지, △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 실질 최저임금 인상 기조 유지, △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공약함.

- 주 6일 근무 폐지 및 주 40시간 근무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상원을 통과한 뒤 연방의회에서 공포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25]
-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룰라 3기 정부는 수수료 상한과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자의 세부 근로 조건은 노조가 단체협상을 통해 다루도록 법안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플라비우 후보 및 우파는 룰라 정부의 노조 중심의 단체 협상을 비판하고 노동자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림.[26]

■ [외교·통상] 균형·다자외교를 기본으로, BRICS·G20·글로벌 사우스와 연대를 강화하고, Mercosur(남미공동시장) 통합을 진전시키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무역협정을 추진하여 통상 대상을 다변화할 계획임.

- 특정 대국에 대한 편향적인 외교를 지양하고 국익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균형 외교를 지향하며,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BRICS, G20,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결속을 지속할 계획임.[27]
- Mercosur 회원국 간 통합을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글로벌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동시에 브라질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Mercosur를 통한 브라질의 통상 대상 다변화에 주력할 계획임.[28]
- 플라비우 후보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트럼프 행정부)·아르헨티나·이스라엘 등 우파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제시하였으나,[29] 외교 노선은 대통령 권한에 속해 의회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통상협정 비준과 같이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한해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음.
  - 다만 Mercosur-EU 잠정무역협정(iTA) 비준안이 2026년 3월 브라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을 고려하면,[30] 우파도 Mercosur 차원의 통상협정 확대에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임.

나. 룰라 3기 정부에서 법제화된 산업 지원 정책

■ 룰라 3기 정부는 △ 핵심광물의 고부가가치화, △ 그린 전환, △ 첨단산업 유치 등을 법률로 제도화하였고 다수의 하위 규정이 차기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핵심광물] 브라질 내에서 광물을 가공하거나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혜택을 제공함.[31]

---

25) Agência Brasil(2026. 10. 14.), "Senado aprova fim da escala 6x1 e redução da jornada de trabalho"(검색일: 2026. 10. 26.).
26) Agência SEnado(2025. 5. 30.), "Sem consenso, regulação de motoristas de aplicativo é desafio para o Congresso"; 플라비우 공약집(2026), pp. 44-45.
27) 룰라 공약(2026), p. 81.
28) 위의 자료, p. 52, p. 80.
29) 플라비우 공약(2026), p. 62.
30) 브라질 상원(2026. 3. 4.), "Por unanimidade, Senado aprova acordo entre Mercosul e União Europeia"(검색일: 2026. 10. 29.).
31) Presidência da República, " LEI Nº 15.506, DE 16 DE SETEMBRO DE 2026"; Felsberg(2026. 9. 21.), "Publicada a Lei nº 15.506/2026, que institui a Política Nacional de Minerais Críticos e Estratégicos"; Atlas Publico(2026. 9. 16.), "Presidência

- [법률 15.506호, 대통령령 13.118호] 단순 채굴이 아닌 광물의 국내 가공·제련·재활용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등록된 핵심광물 사업에 정부 보증과 인허가 우선 처리 등을 지원함.
- 국가 핵심광물 계획 수립, 핵심광물 사업 등록제의 운용 규정 및 세액공제 대상 승인 기준, 광물 원산지 추적 시스템의 세부 운영 규칙 등은 추후 확정되어야 함.

■ **[그린 전환]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 저탄소 수소, △ 탄소시장, △ 바이오연료, △ 친환경 차량, △ 해상 풍력 등을 법제화하고 세제 혜택과 시장·인허가를 활용해 지원함.**

- 저탄소수소(법률 14.948호 및 14.990호): 저탄소수소의 기준을 정하고, 자발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저탄소수소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32]
- 탄소시장(법률 15.042호): 배출권 거래제도(SBCE)를 도입하고, 연 1만 톤(CO_2 환산) 이상 온실가스 배출 시설은 배출량을 보고하고, 연 2만 5천 톤 이상 배출 시설은 배출 한도를 준수하도록 함.[33]
- 바이오연료(법률 14.993호): 휘발유·경유·항공유·천연가스에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34]
- 친환경 차량(법률 14.902호): 자동차 산업의 R&D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차량의 탄소 배출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함.[35]
- 해상풍력(법률 15.097호): 풍력 발전을 위한 해역 사용권은 정부가 해역을 정해 입찰하거나 사업자가 원하는 해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여하고, 발전 수익의 정부·지자체·지역사회 간 배분 비율을 규정함.[36]

표 5. 산업 지원에 관한 주요 법률

분야	현재 규정	추후 확정되어야 할 하위 규정
핵심광물	·핵심광물 (법률 15.506호, 대통령령 13.118호)	·국가 핵심광물 계획, 사업 등록 규정, 세액 공제 세부 규정 등
그린 전환	·저탄소수소(법률 14.948호, 14.990호) ·탄소시장(법률 15.042호) ·바이오연료(법률 14.993호) ·친환경 차량(법률 14.902호) ·해상 풍력(법률 15.097호)	·저탄소수소 세액 공제 입찰 공고, 인증 세부 기준 등 ·업종별 배출한도, 배출권 할당 계획 등 ·연료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목표, 인증 기준, 탄소포집·저장 허가 기준 등 ·해상 풍력의 해역 사용권 부여에 관한 시행령 등
첨단산업	·반도체(법률 14.968호) ·데이터센터(법률 15.504호)	·반도체 지원 방식(세제·통관·금융·인력)의 세부 실행 방안 등 ·데이터센터용 혜택 대상 장비 목록, 에너지 사용 기준 등

자료: 각 법률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da República regulamenta conselho para minerais críticos e estratégicos"(검색일: 2026. 10. 26.).

32) Trendsce(2026. 9. 23.), "Hidrogênio de baixa emissão terá até R$ 18,3 bi em créditos fiscais";Presidência da República, "LEI Nº 14.990, DE 27 DE SETEMBRO DE 2024"; Presidência da República, "LEI Nº 14.948, DE 2 DE AGOSTO DE 2024"(검색일: 2026. 10. 26.).

33) Eixos(2024. 12. 12.), "Lula sanciona sem vetos lei que cria mercado brasileiro de carbono"(검색일: 2026. 10. 26.).

34) Agência Senado(2024. 10. 9.), "Lei do Combustível do Futuro é sancionada com vetos"(검색일: 2026. 10. 26.).

35) Mattos Filho(2024. 7. 1.), "Governo sanciona o Programa Mobilidade Verde e Inovação"(검색일: 2026. 10. 26.).

36) Agência Senado(2025. 1. 14.), "Lei sancionada cria regras para geração de energia em alto-mar"(검색일: 2026. 10. 26.).

■ [첨단산업]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 산업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에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반도체(법률 14.968호):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패널 기업에 장비·원료 수입 시 세금 면제와 판매 수익의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되, 매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함.[37]
- 데이터센터(법률 15.504호): 데이터센터용 장비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 재생·저탄소 에너지 100% 사용, 용량 10% 이상의 국내 공급, 구매액의 2%를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38]

3. 전망 및 시사점

■ 룰라 4기 정부는 우파의 영향력이 커진 의회 구도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필요한 정책은 중도 및 우파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조세] 예산 심의와 조세 개혁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지출 축소와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우파와의 절충이 필요하고, 고소득층 추가 과세와 같이 증세를 통한 재정 개선은 3기 정부와 달리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환경] 산림 보호구역 지정 확대나 산림법 집행 강화와 같이 농업 생산에 부담을 주는 환경 정책은 우파의 반대와 규제 완화를 원하는 입법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노동] 근로시간 단축은 헌법 개정으로 확정되었으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는 우파의 반대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중심으로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좌·우 진영이 공통된 정책 목표를 제시한 산업 분야와 룰라 3기 정부에서 법률로 제정된 산업 지원 정책은 4기 정부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핵심광물의 고부가가치화, 비료 국산화, 농업 생산 지원, 바이오연료 확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원격의료 확대 등은 두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한 정책이기에, 의회의 지지를 얻기 쉬울 것으로 예상됨.
- 법제화하여 지원하는 핵심광물, 그린 전환, 첨단산업(반도체, 데이터센터)은 의회의 구도와 관계없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세제 혜택 중심의 지원은 재정 상태에 영향받을 수 있기에, 정책의 이행 속도와 강도가 4기 정부의 재정 운용 및 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를 비롯한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룰라 4기 정부도 통상 다변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37) Presidência da República, "LEI Nº 14.968, DE 11 DE SETEMBRO DE 2024"(검색일: 2026. 10. 26.).
38) Eixos(2026. 9. 15.), "Redata zera impostos de até R$ 7,2 bilhões para data centers"(검색일: 2026. 10. 26.).

-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 추이는 10%(2025. 4.) → 10%+40%(2025. 8.) → 10%(2026. 2.) → 25%, 12.5%(2026. 7.)[39]임.
  -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25%,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12.5%의 관세를 부과함. 일부 품목(기계·장비, 목재, 유지, 신발, 가구, 의류 등)은 두 관세가 중복 적용되어 37.5%가 부과되는데, 이는 대미 수출의 약 16.5%를 차지함.[40]
- 룰라 대통령은 Mercosur 통합과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통상 대상 다변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2026년 7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한-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이를 위해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한 만큼,[41] 협상 재개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Mercosur는 역외 무역협정을 회원국 공동으로 협상하므로 아르헨티나의 입장도 중요한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는 룰라 정부와 외교 갈등을 빚고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2026. 2.)하는 등 Mercosur의 공동 통상 기조와 배치되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 왔음.
  -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는 Mercosur-EU 잠정무역협정(iTA)을 비준(2026. 2.)하고[42] Mercosur-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에 합의(2026. 6.)[43]하는 등 블록 차원의 통상 확대에는 협조함.

■ **한국과 브라질은 2026년 두 차례(2월, 7월)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에너지·첨단산업 등의 협력에 합의하였고, 이 분야는 브라질의 좌·우 진영이 공통으로 지지하거나 이미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룰라 4기 정부에서 양국 협력이 심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양국 정상은 △ 핵심광물, △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력망), △ AI, △ 방산, △ 항공우주, △ 산업기술, △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 양해각서 체결과 공동 위원회 설립에 합의함.[44]
- 정상회담으로 산업 협력의 틀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실제 사업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브라질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의제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KIEP

39) ReedSmith, "Trump 2.0 tariff tracker";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검색일: 2026. 10. 27.).
40) MDICS(2026. 7. 24.), "Alcance das Medidas Tarifárias dos Estados Unidos sobre Exportações Brasileiras"(검색일: 2026. 10. 27.).
41)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26. 7. 28.),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검색일: 2026. 10. 27.).
42) 아르헨티나 상원(2026. 2. 26.), "EL SENADO APROBÓ LA MODIFICACIÓN A LA LEY DE GLACIARES Y EL ACUERDO MERCOSUR-UE"(검색일: 2026. 10. 29.).
43) 아르헨티나 외교부(2026. 3. 30.), "Lanzamiento de las Negociaciones para un Acuerdo de Asociación Económica entre los Estados Partes del MERCOSUR y Japón"(검색일: 2026. 10. 29.).
44)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26. 7. 28.),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검색일: 2026. 10. 27.).